금주의 법구-〈법구경〉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1월 22일)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2만7천여 사찰 목판 디지털로 기록하다

불교문화재硏 · 문화재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완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 사찰에 소장된 2만 7천여 목판이 6년간의 일제 조사를 통해 모두 디지털로 기록되고 전통 방식으로 인출됐다. 그간 인식 부족으로 보존 위기에 있었던 사찰 소장 목판에 대한 가치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 목판 조사 ·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추진한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의 결과를 정리하는 자리로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들이 전문 연구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지난 6년 동안 전국 114개 사찰에서 2만 7735판을 정밀기록화 조사를 완료했다. 무엇보다 조사 목판 전체를 '디지털 기록화'한 점이 의미가 크다. 실제 기존 목판 연구는 변상판, 권수판, 권미제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고화소 디지털 촬영을 진행해 이미지 DB를 구축했다.

이에 대해 리송재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사찰 목판에 대한 현황과 조사 내용은 모두 디지털 자료로 구축했으며, 문화재청을 비롯해 목판 소장 사찰에도 자료를 제공해 보존 ·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이 같이 구축된 DB자료는 향후 목판 보존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통해 목판의 판종을 분류하고 간행기록을 확인한 점은 이번 조사의 주요 성과다. 실제 조사를 통해 △형태에 의한 판종 분류 △형태에 의한 판각시기 추정 △간행기록 재확인 △판종 재구성 등이 이뤄졌다.

또한, 조사대상 목판 가운데 시기 · 완결 · 기록성 등을 기준으로 전국 12개 사찰에서 50종 2,750판을 전통 방법에 따라 제작한 한지와 송연묵 등으로 인출했다. 한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닥나무와 식물성 점제인 황촉규를 사용해 전통기법으로 제작됐으며, 송연묵은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으로 만들어졌다. 인출은 국내 사찰 목판 인견에 인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장인이 담당했다. 인출된 인경본을 장황해 전체 231책(77책, 각 3부)을 완성한 것도 의미가 크다.

그간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사찰 소장 목판들이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됐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성과다. 그간 사찰 소장 목판은 정확한 수량과 내용 등의 파악이 어려워 문화재 지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사찰 소장 목판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8건의 목판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됐으며, 현재에도 서울 · 경상도 지역 목판 12건이 국가지정문화재 추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과제로 남았다. 리송재 팀장은 "일제 조사 사업의 성과로 구축된 목록을 바탕으로 비지정문화재까지 아우르는 모니터링 사업은 필수적"이라며 "목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을 구분해 사찰 소장 유물의 보관 현황과 보존 상태를 등급화하면 문화재 관리의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14개 사찰 · 2만 7천여 판
2014년부터 6년 동안 조사
모두 디지털 기록으로 담아
2750판 전통 방식으로 인출
목판 18건 보물 지정 '성과'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년간 진행한 '전국 사찰 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향후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수미단, 천개(天蓋, 사찰 천장 장식) 등 사찰 목공예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한 '전국 사찰 목공예 일제조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그동안 수미단과 천개 등은 불상과 불화에 비해 불교건축 일부로 인식돼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다"면서 "외부 위험에 노출된 수미단 및 불단 장엄용 목공예에 대한 정밀 자료를 조사를 통해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뜻한 '자비심' 배달합니다 서울 상계동의 양지마을에 스님들을 비롯한 불자들로 구성된 아이연탄맨이 자비의 연탄을 배달했다. 아름다운동행(대표 원행, 이하 동행)은 12월 12일 서울 노원구 상계3 · 4동 양지마을에서 연탄지원 캠페인 '아이연탄맨'을 실시했다. 이날 연탄 나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스님들과 종무원, 조계사 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골목길을 누비며 따뜻한 겨울을 위한 자비심을 나눴다. 연탄 배달 전 들어 보인 장갑의 빨간색 만큼 참가자들의 마음이 따뜻해 보인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나눔 템플스테이' 참가자 2만 명 돌파

공상경찰관 ·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공익 목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전개하는 '나눔 템플스테이'를 올해 2만여 명이 체험하면서 큰 성과를 거뒀다.

문화사업단은 "올해 2만4000여 명에게 공익 템플스테이인 '나눔 템플스테이'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나눔 템플스테이는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저소득층, 공상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템플스테이다. 문화사업단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실시해온 사회공헌 템플스테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나눔 템플스테이' 사업을 신설해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계층에 체계적으로 템플스테이를 지원했다. 특히 전국 각지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 지역 복지시설 네트워크를 구축, 전국적인 나눔 템플스테이 확대를 이끌었다. 그 결과 나눔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지난해 9795명에서 올해 2만4471명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올해는 전국 134개 사찰에서 나눔 템플스테이를 운영, 올해 템플스테이 총 참가자 중 나눔 템플스테이가 8.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
연말연시 템플스테이도 운영

문화사업단 측은 나눔 템플스테이 사업의 확대 이유를 "템플스테이 기본 정신은 불교문화 체험을 통한 심신치유와 부처님 자비정신인 나눔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사업단은 내년에도 나눔 템플스테이를 강화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공상경찰 관처럼 정신건강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템플스테이가 큰 도움이 된다"며 "명상과 차담, 108배를 통한 내면 수양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경 스님은 이어 "소외계층별로 맞춤형 나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더 많은 지자체 및 정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템플스테이를 통해 사회공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내년 2월까지 전국 50여 사찰서 '겨울 특별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여기에는 2020년 새해맞이를 겨냥한 프로그램이 많다. 해돋이 보며 소원 빌기, 새해맞이 타종, 해맞이 포행, 새해 소원을 담은 단주와 연꽃 만들기 등이 있다.

겨울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려면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사찰명이나 프로그램 제목 등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軍지휘관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 발간

군대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해 군지휘관들이 어떻게 부대 운영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지침서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군대 내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을 군 지휘관용으로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12월 10일 밝혔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최근 더욱 높아진 군대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군 장병들의 눈높이에 부응해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편람을 제작했다. 12월 중순에 전군을 대상으로 총 2만 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편람을 통해 군대 내에서 허용되는 종교 활동의 범위 등을 명확히 안내해, 종교차별 예방 노력이 군대 내 종교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편람은 △군대 내 종교차별 예방의 필요성 △종교차별 사례 △국내외 판례 등을 간략하면서도 폭넓게 담았다. 내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종교차별자문위원회, 종교학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이 감수를 했다.

신성민 기자

